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12
Dec. 2022
Vol.10 No.12

통권 100호

- [특집] 주안에신문 100호
- ICY 중고등부 수련회
- 제25차 주안에만남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한어청년부 코람데오의 식사대접에 드림목장 80여분의 어르신들이 식사 후 감사와 기쁨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Paul Yang>

공경과 감사 '주안에 효도잔치'

■ 코람데오 드림목장 송년 섬김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낮 12시 부터 주안에교회 친교실에서는 드림목장에 속한 어르신들을 위한 코람데오 청년들의 오찬 접대가 있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손수 장을 봐서 마련한 훌륭한 음식들과 후식으로 준비한 말랑말랑한 홍시는 금상첨화였다.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없는 정성스럽고 정갈하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받으며 참석하신 어르신들의 칭찬과 감사는 그 질주를 몰랐다. <4면에 계속>

| 나형철 기자 |



관계기사 4, 5, 12면

주안에신문 100호 하나님 은혜 생생히

2013년 9월에 발행을 시작한 주안에신문은 매 달마다 주안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는 증거의 모음이었습니다. 첫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땀 때마다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주안에신문은 보여줍니다.



주안에신문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산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안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삶을 변화 시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어린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우리의 영적인 성숙,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웃음과 감사,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 신문마다 약 20여 가지 주님께서 일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친히 주안에교회에서 일하신 증거를 보여주니, 100회가 되기 까지 약 이천 여개의 증언과 소식들을 지난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문서국의 노력과 땀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신문을 기획하고 교회의 곳곳을 찾아가 내용을 파악하고, 사진을 담고, 인터뷰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글로 옮겨 낸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섬긴 이들이 있어, 오늘 100회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주안에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안에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섭리 가운데 200회, 500회, 1000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주안에교회와 주안에신문을 통해 증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안에신문 100회를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 최혁 목사 |



‘고요한 밤...’ 예수님 탄생 기쁨 선사

■ IAM 중찬단 캐롤송

12월 24일, 오후 3시 IAM중찬단 아이들과 부모들은 캐롤링 행사로 교회에 모였다. 바쁜 시기라 모두 모일 수는 없었지만, ICY와 EM(Josh family)에서 힘을 모아 주었다.

1시간 정도를 연습하고,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김치찌개와 파스타, 떡볶이로 이른 저녁을 먹고, 이제형 집사(지휘)와 최종적으로 맞춘 뒤에 아이들은 크리스 목사(EM담당)가 운전하는 교회 밴을, 학부모들은 2~3개의 차량에 나눠 타고 움직였다.

캐롤은 집집마다 3곡씩 불렀고, 학부모들도 같이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박수도 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굵은 날씨임에도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맞아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얼굴또한 웃음이 가득했다.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김황희 장로 맥에서 간단한 간식과 다과를 내어 주셔서 감사했다.

아이들이 그냥 받기만 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교회 웃어른들을 섬기며 준비하는 이브가 된 것 같아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는다.

| 이성은 기자 |



주안에 한국학교 가을학기 종강예배 <관계기사: 9면>



찬양 · 말씀 통해 뜨거운 회개와 결단의 시간

■ ICY 중고등부 수련회

팜데일에 위치한 Los Angeles Crest Christian Camp에서 12월 26~28일 2박3일 ICY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다. 두어달 전부터 새벽기도에서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준비한 시간이다.

친구랑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청소년기에 팬데믹을 만나서, 모이는 것

이 어려웠던 우리 학생들이 3년만에 집을 떠나 믿음의 공동체, 주안에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을 하고, 함께 자고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리스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우리는 작고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갚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예

수님을 통해 깨끗해지기를..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EM 리더들이 준비한 뜨거운 찬양 중, 특히 둘째날 저녁 가운데 어둠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학생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또 함께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어짐을 보았다. <9면에 계속>

| 류명수 기자 |

예배와 말씀 사모하는 새가족들 발길 이어져

■ 제25차 주안에만남

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동안 이루어진 주안에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 2월 13일에 열린 주안에만남에서는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기를 소망하는 20여명의 새가족이 탄생하였고 7월 10일에 있었던 제23차 주안에만남은 새로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출발점에서 33명의 귀한 새가족을 환영 하였다.

가을에 문턱에서 열렸던 10월의 24차 주안에 만남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목표로 22명의 새신자가 주안에 새가족으로 등록 되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있었던 25차 주안에 만남은 무척 편안한 분위기와 쉽이 있는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만해도 가까워 진다는 평범한 진리속에서 행사가 진행 되었다. 특별히 지난 4월 3일에는 코람데오 공동체의 주안에만남에서는 33명의



뜻뜻한 젊은이들이 공동체 속으로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맛보았다.

새가족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방법은 우리 모두의 삶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갖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에 오게 하신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11일에 있었던 제 25차 모임에 참석하였던 자넷김과 김현영 집사 부부는 올해에 가장 잘한 일이 주안에 교회에 등록한 일이라고 하였다.

송하장, 석민경 부부는 산호세에 살때 최혁 목사님의 CD를 들었는데 이 지역

으로 이사 오면서 구글맵으로 찾고 찾아 왔다고 한다. 지나가다 교회 십자가를 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또는 친구소개로, 웹사이트로 등등... 여러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주안에교회에 모여든 새가족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2022년도에 믿음의 터전을 잡은 새신자 분들께 주안에교회에서의 행복한 신앙 생활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한다.

| 임용자 기자 |

■ 주안신문 100호 축하메시지



‘은혜로운 간증, 화목한 교회 모습’

김진석 장로
먼저 주안에 신문 100회 특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주안에 교회 첫 예배 때부터 지난 주 성탄예배까지의 지난 10여년이 하나님 연출하신 한편의 영화처럼 스치며 지나갑니다.
개척 초기에 갑자기 모여드는 성도님들로 인해 파김칫을 염려하며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확장해야할지 고민하던 순간들... 여러 채플을 오가면서 대표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인사하기 바빴던 순간들.. 주안에교회를 핍박하며 매장하려했던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앞에 저들을 무너뜨리며 승리의 깃발을 올렸던 순간들.. 코로나로 인해 접해보지 않던 영상예배와 줌을 통해 주안에 양육과 훈련을 하며 스크린으로 만났던 많은 성도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겪었던 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 주안에교회를 든든

한 반석위에 더욱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최혁 담임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정로를 고집하며 말씀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의 리더십은 우리 주안에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갈 뿐아니라 예배다운 예배,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게하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에 결과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안에교회 새가족국장으로 그동안 우리 주안에교회에 등록하신 많은 새가족들의 사진과 기사를 보면서 올 한해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방문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 마음문이 열려 등록하시

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감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가족으로 오신분들이 주안에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시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 분들이 바로 주안에교회 미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계속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물밑듯 밀려오는 새가족으로 인해 더 자주해야하는 새가족 환영회와 개척 초기에 염려했던 파김칫을 준비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주안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주안에 신문이 200, 300회~ 회를 거듭하며 더 많은 간증과 화목한 주안에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재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신문 발행을 위해 수고하신 문서국에게도 감사합니다. 계속 화이팅~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람데오 섬김잔치 · 1면서 계속〉 식사 후 찬양과 특별순서까지 알찬 마무리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새해를 맞이하는 흐뭇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다.
마지막엔 좋은 선물까지 빈틈없는 준비와 진행으로 감탄을 안기며 감사가 절로 나오게하는 기분좋은 행사였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받는 성숙한 코람데오 청년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 주안에신문 100호 축하메시지



‘주안에교회, 발자취가 차곡차곡’

이광영 안수집사
 먼저 주안에 신문 100호 발행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문서국을 섬기면서 한 달 한 달 주안에 교회의 소식을 전한다는 자부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매 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라온 기사를 몇 번씩 읽다 보면 저절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교회의 많은 행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신문이 매달 나올 때 마다 지금도 진행중임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뛰고 달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선포하는 주안에 교회,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주안에 신문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형철 장로
 주안에 News InChrist 100호를 발행하며 오늘 주안에 신문 통권 100호를 발행하였다.
 2013년 9월에 1호가 발간된 이후 햇수로 1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안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도움 그리고 주안에교회 문서 사역국 전 현직 위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다.
 보통 우리들은 ‘100’ 이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며 좋아하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아기가 태어나 100일째 되는 날에 100일 잔치를 하며 축하해 주고 또 “100세까지 장수 하세요” 하며 축원도 한다. 그런가하면 시험 성적이 만점일 때 100점이라 하고 물이 끓는 온도도 섭씨 100도라 한다.
 한국인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Time 이 선정한 2022년 세계에서 영향력이 많은 100 사람”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도달, 꼭 참, 성취를 강조할 때 100

이란 숫자가 쓰이는 것 같다.
 이제 우리 주안에 신문도 100호를 발행한 2023년을 기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더 약하여 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신문이 되기를 다짐한다.
 주안에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향상에 필요한 많은 정보와 방안들을 제공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기며 흥미를 줄 수 있는 기사 작성과 편집에 노력하려고 한다.
 주안에교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여타 독자들도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성숙되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신문 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사와 제안들을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안에 신문이 200호, 300호, 1,000호---계속 발행하며 성장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다방면에서의 협조 있기를 기대한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밸리 8목장



밸리 4목장

EM Fellowship

▶ White Elephant Gift Exchange

Getting ready for the Christmas spirit, we exchange our unused(?) gifts with others. The most popular item was an IOU note from another member.



▶ Home Invitational at Pastor Chris' Home

Food, Games, and a cozy place are great combinations to share our lives in EM community. Thank you, Pastor Chris, for inviting EM to your home.



▶ Ice Skating with ICY

On Nov. 27th, the EM ministry invited ICY upper-class students to an ice skating rink to build our community. It was a great time enjoying a winter sport with everyone.



2022 Winter ICY Retreat



■ Incense Arise!

"And when he had taken it,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one had a harp and they were holding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God's people." Revelation 5:8

As the year 2022 comes to a close, ICY hosted its annual winter retreat from December 26th to 28th. This year, the retreat was held at Angeles Crest Christian Camp. The facility located within the San Gabriel Mountains provided many amenities, including lodging, worship space, three meals a day, and entertainment. Furthermore, the venue being complimented by the beautiful wilderness scenery of Angeles National Forest provided for a peaceful environment for worship and connection to the Lord.

EM pastor Chris Lee presented all four sermons, preaching the Beatitudes of Christ. His message strived and perhaps succeeded in inspiring our youth to find purpose in their walk of faith and understan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ccompanied by the sermons were the vibrant worship sessions led by the ICY praise team. Through the retreat, worship and praise was elevated to levels beyond that of any given Sunday.

The leadership of ICY further prepared various fellowship activities throughout the retreat. The youth were divided into small groups, assigned to individual leaders. During small group sessions, pastor Chris' message was discussed, personal experiences were shared, and everyone prayed for one another. The youth were also divided into

separate activity groups, participating in team-building games, including a craftily-designed "Nonsense Quiz" and a skit-performance competition. Through these experiences, students were able to build new relationships and connect in their faith with thei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None of this was possible without the contributions of many individuals. Firstly, a special thanks to EM pastor Chris Lee for being the guest speaker of the retreat. Secondly, another thank you is in order for the ICY praise team for leading worship. In addition, thank you to the leadership of ICY, led by pastors Sam Lee and Jennifer Oh, whose guidance and planning allowed for the retreat to run smoothly. Finally, one cannot forget the hard work and dedication of the PSG committee. They are the backbone for ICY and their constant support is always taken with everlasting gratitude.

Our youth are the future of In Christ Community Church. More importantly, they are the next generation of believers to live and serve for the glory of God. The leadership of ICY along with others involved in this year's retreat therefore made it their priority to guide our youth, growing their faith and leading them to find the love of God. But beyond this, the entire ICCC community can further contribute to the continued spiritual growth of the youth. Winter retreat may have come to a close but the journey is only beginning. And only through faith in God will we ensure a bright future in the next generation.

| Christopher Kim |



■ 새가족 소개

10년전 접했던 목사님 말씀, 이젠 가까이서...

9월 중순에 영주권을 받고 산타클라리타 지인 댁에 머물며 교회를 알아보던 중 최혁 목사님의 주안에 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10년전 아이들 교육 위해 산호세에서 살았을 때 엘에이에서 보내오는 최목사님 CD를 들으며 은혜를 많이 받았었기에 설교는 정말 잘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고 목사님 교회에 다녀 보고 싶었습니다.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전도사님과 눈이 마주쳐 예배 후 새 가족으로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정성껏 섬겨주시는 모습에 몸둘바를 몰랐고 교회 프로그램 소개와 간단한 투어도 해주셨으나 아직 정착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고 목사님은 시카고로 한국으로 바쁘셔서 직접 설교도 많이 못 들어 등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만 보고 충성하며 기뻐하며 사는 신자 분들을 보면서 목사님의 가르침이 이분들을 이렇게 살게 했나보다 하여 등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순에 주안에 만남이 있었고, 예쁜 장식, 맛있는 음식,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직접 서빙 해 주시는 황송한 대접, 음악, 즐거운 분위기 모두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목회철학을 듣고 나니 이 교회를 등록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찬양도 은혜롭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목사님의 설교는 그동안 들었던 설교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동안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나'를 이제는 이해하며 자아가 아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도록 노력하려합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주의 집에 머물며 주님 다시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 닦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석민경 집사 |

‘조용한 헌신, 따뜻한 초대, 즐거운 교제의 장’

■ OC 권사회 송년모임

OC채플 공동체는 여러번의 이사를 하면서 공간적 제한으로 교회 안에서 오붓하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집을 열고 성도를 초대하고 대접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권사회, 교회의 일꾼들을 위한 위로의 저녁 밥상, 코람데오, 영커플 교회의 모든 부서의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신 장로님 부부의 남모르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다 타 교회로 옮긴 사람들까지도 가족의 밥상에 초대하셨고, 언제나 외롭고 힘든 사람을 불러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소리도 없이 헌신하신 장로님 부부는 2022년을 보내면서 또 대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다사다난한 연말이라 초대에 응하신 권사님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박민재 목사님 내외, 김현권 목사님 내외분을 초대해서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했던 날들을 감사했습니다.



다. 타이틀은 권사회 였지만 부부 동반이어서 남자분들의 대화 소리가 집안에 가득 했습니다.

오실 때 \$20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 교환도 했고, 세팀으로 나눠서 윗놀이도 하면서 웃고 즐거워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손에 선물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안에 교제가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수고하시는 김경일 장로님과 3년 연속 권사회장을 맡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는 김옥희 권사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댁에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 이예스더 권사 |

■ 안수집사회 총회

밸리·OC통합... 김재동 회장 '최선 봉사'



지난 11월 20일(주일) 2부예배를 마친 후 밸리채플 본당에서 밸리채플과 OC채플 연합 안수집사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양채플 2022년도 회계보고를 드리고, 운영업 피택장로의 사회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두 채플 안수집사회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새로이 2023년을 이끌고 갈 임원진이 필요하고 또 내년에 새로 임직하는 안수집사들과 함께 주안에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이끌 일꾼이 필요한 시기에, 양 채플을 모두 섬긴 경험이 있는 김재동 안수집사가 최고득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재도 50여명의 회원이 안수집사로 직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입 안수집사들이함께하게 되면 그 인원이 70여명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재동 안수집사는 앞으로 모든 안수집사들과 함께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이광영 기자 |

■ 주안에 동호회모임

'주안에 할배' 골프회 새해 더 힘차게!



주안에할배 골프클럽 정기 총회 지난 12월 8일 골프게임 후 샌퍼난도 밸리 Reseda에 위치한 Hot Wok 중식당에서 조 규진 장로님께서 대접하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주안에할배 골프클럽 멤버 16명이 참석하여 이 규환 회장의 사회로 2022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2023년도 회장 이규환 장로 / 2023 년도 총무 고용흠 안수집사 2. 2023년부터 회원 1인당 월 회비를 \$10 씩 하되 \$120을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한다. 3. 여자회원을 가입하기로 하여 12-8-2022 현재 회원이 19명이 되었다.

| 나형철 기자 |

■ ICY 중고등부 수련회

〈2면서 계속〉아쉽게도 둘째날 오후부터 비가 내려서 아이들은 야외 활동과 운동이 제한되어 아쉬웠지만, 비온 후 셋째날 아침 구름 한점 없이 청명한 하늘에 차가운 공기는 새로워진 아이들의 마음처럼 맑고 시원했다.

산 아래 비구를 사이로 내려오면서 보니 우리가 머물던 수련회 장소는 비구를 위에 맑은 하늘 아래 엮음을 알게 되었다. 이곳의 음식은 깔끔하고 맛도 건강해서, 육도 건강해지는 만족스런 식사 시간이었다. 비내리는 산길을 오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하러 와주신 조용대, 김경배 장로님, 양현석 집사님, 탐박 집사님, 폴양 형제님과 그 외 다른 EM리더들도 있었다.

PSG로 수고해 주신 강케빈 집사님과 은숙 권사님도 휴가를 내어 아이들의 간식과 약등을 챙겨주시며, 부모님과 의 소통을 돕고 수련회 내내 서포트해 주셨다. 저 또한 수련회에 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아이들이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수련회라서 많은 기대를 했다.

아직 청소년기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을 만나고,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인되신 삶을 살기를 바랐는데,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순종적인 태도로 돌아온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지고 계심을 믿고, 또 그 과정가운데 있음을 믿는다.

때로는 반항을 하며 센 척하는 아이들 내면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여린 영혼들이 있음을 보았다. 부모로서 또한 먼저된 신앙의 선배로서, 자신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찾아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한번 더 다짐한다.

한글학교 종강식

12월 18일 오후 3시 한글학교 수업을 끝내고 삼삼오오 교실로 모였다. 오늘은 가을학기 종강식이 있는 날, 니콜전도사의 기도로 시작한 종강식은 인사말과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개근상, 정근상, 이외에도 각반 선생님들이 추천해서 받는 특별상이 있었는데 '스스로 척척상' '근면성실상' '예쁜미소상' '멋진 발표상' 문화활동상' '바른 예절상' 이다.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이름도 이름이지만, 모든 아이들이 서운하지 않게 골고루 아이들을 챙기시는 선생님들 마음이 상 속에 담겨져 있는 듯했다. 상과 함께 소정의 상품권과 상품이 주어졌고, 선생님들 곁에서 수고한 TA(Teacher Assistance) 들에게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선물이 주어졌다.

모든 순서 뒤에 단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본인들이 정성껏 만든 전통 장식품들을 찾아서 집으로 귀가했다. 언젠가 한글로 또박또박 글을 쓰며 성경 암송도 한국말로 할 수 있길 기대하며 봄학기에 다시 만나요~

| 이성은 기자 |

■ 캄보디아 / 이선진 · 정영희



엘림교회와 엘림신학교의 성탄예배에 참석했어요. 엘림교회 학생들이 캄보디아 전통춤으로 찬양하고 신학교학생들의 찬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이웃들 성탄예배 초청 선물 전달

살롬! 2022년 12월 마지막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시 되돌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겸손히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성탄 나무와 장식을 사서 집안과 밖을 장식하고 성탄절이 돌아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명절과 절기에 천사를 맞이 한다며 제사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는 현지인들을 보며 마음 아팠는데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성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에게도 풍성한 성탄절이 되었고 현지인들을 위해서도 풍성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이웃들 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저희 가족이 정성껏 선물을 150개 정도 준비해서 다니 가정 교회와 프라옥 가정 교회와 시온교회 그리고 룬돌 교회 한 곳을 더 지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를 저희 딸이 캄보디아말로 적고 코팅하고 책갈피를 만들고 노트, 볼펜, 과자, 우유, 사탕, 장난감을 넣고 포장해서 교회마다 나눴는데 처음 받아보는 성탄절 선물에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교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파운드 케익을 준비하고 성탄 카드와 복음전도지를 넣어 선물하고, 환경미화원분들께는 치약, 칫솔, 비누와 복음전도지를 넣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 네팔 / 이세정 · 이경희

현지인 학교교육 위해 건축 준비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학교는 인도 국경 지역이고 카트만두에서는 7시간 운전해서 가야하는 먼 길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신분이 맨 아래 신분인 불가촉천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도 못가기 때문에 글도 모르고 네팔말도 모르고 부족말만 씁니다. 그래서 네팔말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사는 동네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힌두교에서 이 사람들은 동물이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세워서 먼저 네팔말과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나중에는 한국어도 가르칠 것입니다. 네팔에서는 한국어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 한국어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네팔에서는 한달에 \$100-\$200 벌지만 한국에서는 \$2000 법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는 학교공부를 통해 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믿게 하여 자기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건축하는데 물질이 조금 더 필요한데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 니카라과 / 이필우 · 이진경

현지인 학교 정식 성경 클래식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분들 모두 평강하십니까?

2022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씁니다. 세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건강과 사역, 가정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아멘! 하고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며 니카라과 소식과 기도제목 전하겠습니다.

〈학교 사역〉

제가 섬기는 현지인 학교(Instituto Publico Monsenor Rafael Angel Reyes)는 지난 주 부터 겨울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에 사역 4년여 만에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정식 Class를 허락 받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과목 시간을 빌려서 했습) 사회주의 공립학교에서 개신교를 허가해 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 이기에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섬기는 미션스쿨(Nicaragua Christian Academy)은 20년 전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선교단체로부터 생긴 학교로서,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Main teacher 는 주로 미국 선교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내 이진경 선교사도 학교의 선교 Vision 에 함께하며 2018년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사역〉

지난 해부터 협력하게 된 현지인 교회(La Iglesia mas que vencedores)의 건축이 9월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천막을 치고 예배 드렸던 교회가 벽돌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1/3 올라갔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매주 예배와 수요일 성경공부를 리더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 농산물들을 팔아 현금하며 밤에는 불침번을 서면서 교회를 지키는 교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자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의 실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참감사 드리며, 2023년에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넘치도록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 디지털 지식 따라잡기/ 메타버스(2)

가상세계 현실접목, 미래 산업의 새로운 영역

A. 메타버스 용어와 개념: 미국의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1992년에 쓴 공상과학(SF) 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 메타버스란 용어와 개념이 처음 알려진 후 다른 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메타버스가 등장했다.

그 후 스마트폰이 개발 일반화 되고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2010년대에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을 현실세계와 접목하는 혁명적 방안을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시도하였지만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 하였다.

B. 메타버스의 부활과 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던 메타버스가 코비드 19 유행으로 인해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많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게임과 놀이에 심취하게 되고 이 게임과 놀이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의 붐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몰려드는 이용자들이 가상의 게임 공간에서 이용하고 활동할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채우기 위해 게임 개발자들은 그래픽 처리 장치, 인공지능, 보다 정교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기술을 총체적으로 정교하게 개발 발전 시키게 되었다.

C. 특출한 게임 회사: * 이용자들이 가상의 게임공간에서 게임을 할 때 자기 분신을 만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전화기 등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조종하여 활동하게 하는데 이 분신을 ‘



아바타’ 라고 부른다. 같은 게임공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도 모두 각자의 아바타가 있고 이용자들이 각자의 아바타를 조종 경기도하고 노래도 부르고 대화도 하게 된다. 아바타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택하기도 하고 자기 사진으로 만들기도 한다.

* 미국의 로블락스(Roblox), 한국의 제페토(Zepetto)

로블락스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임회사인데 2021년 3분기 매출액이 5억 400백만 달러, 하루 접속 이용자가 4,730만 명이 될 정도로 막강한 인기를 누리는 회사인데 게임공간에 회사가 만든 게임 외에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어 공간에 올리기도 하는데 다른 이용자들이 이 게임에 접속 하여 게임을 하면 회사의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액수를 숫자에 따라 게임 개발자에게 분배 해 주는 좋은 점이 있다.

* 제페토는 한국의 네이버의 자회사 게임회사인데 2021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2억 5000만 명인데 이중 90%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제페토 놀이 공간에 구찌 나이키 디즈니 등 패션기업이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 대기업이 광고 공간을 설치하고 자사 제품을 알리기에 힘쓸만큼 인기 있고 영향이 크다고 한다.

D.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컴퓨터로 구현한 가상세계를 우리 현실상황에 연결 활용하는 일은 사람의 시각 청각 등 감각 기관을 이용 확장 할 수 있는데 시각을 활용하는 기술에 VR과 AR이 있다.

VR (Virtual Reality)은 물안경 형태의 특수 안경을 쓰면 눈앞의 시야가 차단되고 컴퓨터로 구현된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하게하는 기술이다.

AR(Augmented Reality)은 현실을 기반으로 정보를 보이는 기술인데 스마트폰이나 안경 위에 각종 정보를 보여주게 된다.

현재 애플, 구글과 삼성전자, 페이스북(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이 기술을 구현할 기기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3년에 대중화 되리라 예상 한다.

* 미래에는 교육현장, 의료계의 원격치료 및 치료기술 개발, 제조업, 연예 및 엔터테인먼트, 광고 및 제품 선전 등 다방면에 AR 이나 VR 기술이 활용 되어 큰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 나형철 기자 |



백리 12목장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백리 26목장



드림 2목장

주안에 News InChrist

‘100호 주안에신문’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100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유난히 많은 의미를 담고 싶어한다. 주안에신문 100호를 발행하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100을 나타내는 백은 전체, 완성, 가득함 그리고 진정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온 국민을 이르는 “백성”이라는 말의 “백”도 모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며, 100점 만점이란 말처럼 꼭 채움을 뜻하는 즉,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러움을 표현할때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주안에신문은 아직 부족함도 많고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가 힘을 모아서 100호까지 달려오게 되었음에 나름의 의미를 두며 서로에게 격려를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때 맞춰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달에 100호를 발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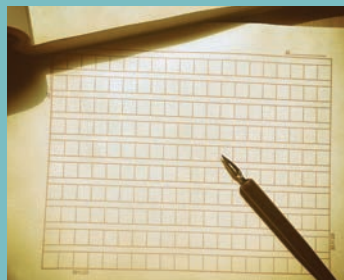


게 된 우연까지도 우리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한자한자 성의껏 지면을 채워 주신 많은 주안에교회의 교우분들 또한 숨은 공로자들 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어찌보면 힘들 수 있는 작업인데도 내색한번 하지않고 애써

주신 문서국의 기자분들과 편집팀 또한 100이라는 숫자에 도달케 한 진정한 공로자들임을 꼭 밝히고 싶다.

2023년 주안에신문은 또다시 100 다음에오는 101이라는 숫자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보려한다. 많은 분들의 충고와 조언도 달게 받으려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안에신문의 야무진 발걸음은 계속될 것임을 확신한다.

| 오희경 문서국 국장 |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에스더,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